

2002년 10월 25일

대전충남 당직자 간담회 노무현 후보 연설

존경하는 대전 충남.북의 우리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개혁국민정당 당원동지 여러분! 노사모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따뜻하게 해준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3등입니다. (박수)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열렬히 지지해 주셔서 제가 한때 여론조사에서 63% 까지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켜 내지 못하고 지금 3등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얼굴을 뵈려고 하니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박수) 여러분 저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지금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무한한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박수) 12월 19일에 반드시 당선돼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박수) 이 방은 지금 바람이 다 닫혀있는데도 바람이 느껴집니다. 저의 가슴속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부는 바람이 제 가슴으로 불어닥칩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제가 참으로 아끼고 기대하고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선거 때 열심히 가서

함께 길거리를 누볐던 김민석 의원이 정말 아깝게도 당을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홈페이지 후원계좌에 생각지도 않았던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박수) 누가 이일을 주동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일주일이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오후 3시 확인해 보니까 10억을 넘어섰다는 것 아닙니까? (박수) 정말 경력이 화려하고 또 우리 사회에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10억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내가 재벌이라면 10억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10억이 한없이 큼니다. 한없이 크고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갖다준 10억이라면 제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을 것입니다. 차마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3만 명이 넘게 3만원씩 4만원씩 아니 만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주신 10억입니다. 떳떳하게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빚지겠습니다. (박수)

저는 이 기적 앞에 아니 지금 이 반란 앞에 이 혁명의 대열에 한편으로는 힘이 넘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옷깃을 여밍니다. 그 분들을 만날 때 아니 우리 모든 국민들을 만날 때 항상 경건한 자세로 주인을 섬기듯이 옷깃을 여미겠습니다.

바람이 불니다. 저는 돛을 올렸습니다. 기름으로 돌리는 배가 아니라 오로지 돛으로 만가는 배, 돛을 올렸습니다. 출범했습니다. 바람이 꺼지면 그때는 제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계속 보내주시겠습니까? (박수) 키를 잡겠습니다. 똑 바로 잡겠습니다. 그야 말로 원칙의 길로 정의의 길로 그리고 이 땅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로 그리고 화해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는 길로 이 키를 똑바로 잡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박수) 저도 또한 두렵습니다. 바람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 언제까지 이 바람이 불어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한편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바

람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 반란의 바람이 민주혁명의 바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불어줄 것으로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박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 그야 말로 세 사람이 만나서 편안하게 맘 먹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암울한 시절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정치를 얘기하고 함께 미래를 얘기하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이런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시절에 20년 30년 40년 버티어주신 우리 선배님들 그 선배님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고계십니다.

87년 6월항쟁을 보셨고 그리고 불만이나마 하나회 숙청을 보셨고 그리고 마침내 정권교체를 해서 6.15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군사독재도 결국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87년 6월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4.13호헌조치 나오고 6월항쟁을 계획하면서 그 막강한 전두환 정권이 차마 무너지랴 정말 그러겠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하기 때문에 해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모두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싸워야 한다고 힘을 합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항쟁을 혁명이라고 이름짓지 못합니다. 분열로 인해서 완성 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90년 3당합당 때 저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자유민주당 하던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으면 정치를 이 이상 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남에 있는 사람이 평화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으면 정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저의 선택은 반란이었습니다. 대세에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우리의 통념에 대해서 우리 정치문화에 대해서 반란했던 것입니다. 반역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몇 번씩 떨어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97년 우리는 또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미리 예측

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권교체를 위해서 싸웠던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득권의 질서를 끝까지 유지해온 우리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기득권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반란했고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저도 종로에서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남들은 위험한 일한다고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일제때는 친일하고 3당 합당하여 정권잡고 또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부귀만 누렸던, 이권 염치없는 세력들 그들이 만들어낸 분열, 그들이 지금껏 유지하려는 분열, 그 분열을 통해서 이 부당하고 부도덕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땅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란을 혁명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반란을 일으키고 또 다시 분열에 분노로써 도전 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났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노사모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박수) 저를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고 제가 부산에서 내려갔을 때 부산에서 당선되면 대통령후보로 나서보겠다고 얘기했지 떨어지면 나서겠다고 말안했습니다. 떨어졌으면 그만두어야지요. 그때 인터넷에서 일어났던 혁명은 저를 대통령후보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시다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불고 있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일고 있는 이 반란의 바람을 역사의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이면에 정치하기 위해서 저에게 내리신 하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되면

그들의 반란에 휩쓸려 가는 반란군의 한사람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있는 노사모,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표출하였을 뿐이지 똑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입니다. (박수)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보따리 싸서 도망을 가고 나라를 지켜냈던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켜냈던 이 땅의 평범한 백성들 그 백성의 후예들, 아직 아무런 어떤 특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독재정권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바 없고 오로지 헌신으로써 땀흘려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그 대가 이외에 바라지 않는 이 땅에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보통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저는 앞으로 진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박수, 노무현 연호!) 오늘 저를 쓰러졌던 저를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고 아니 죽었다고 말해야 될 저를 다시 살려내서 이 자리까지 밀고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함께 싣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보통사람들 그들이 있는 한 저는 이 바람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우리 서민들 사정을 제가 좀 잘 살피겠지요?

저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입니다. 제가 고등고시에 합격해서 남들로부터 출세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러나 어렵게 살았던 많은 서민들을 한번도 외면해 보지 않았습시다. 아직도 저는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 분들과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는 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좀더 걱정을 적게 하고 좀더 내일에 대한 희망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제가 육군상병으로 제대했습니다. 최전방 GP까지 가서 근무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름통지고 100m 계곡까지 내려가서 물통 짊어지고 급수작전도 해봤습니다. 촌놈인 제가 안해 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또 있지요.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정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은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다음 대통령을 뽑는데 왕처럼 생긴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합니다. 왕처럼 생긴 사람을 뽑아내면 그 사람이 왕처럼 되어 우리 백성들은 갑갑합니다.

제가 조금 뺨뺨하지 못하고 TV에 나올 때 자꾸 고개를 숙이고 저래가지고 대통령 품위가 되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앞으로 고개 뺨뺨하게 하겠습니다. (박수) 뺨뺨하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즘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넥타이도 달라지고 헤어스타일도 좀 달라졌지요? (예)

껍데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바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포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바꾸지 못합니다. (박수). 어릴 때부터 귀족으로 자라 호강 만하고 남위에 군림만 하던 사람은 절대로 남의 아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말단 사원 경험도 없이 바로 윗자리에 올라가 내려다만 본 사람, 지시만 하던 사람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배자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배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3김시대 우리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정치문화가 지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국민들이 떠받드는 문화였습니다. 정치인을 떠받드는 문화였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떠받드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수)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이제 다음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섬기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도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수평적으로 교체 안 하면 뒤로 섬기면서 살아왔습

니다. 앞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꼭 될 겁니다. (박수)

이 땅의 서민들 괘시받고 푸대접받고 속기만고 모셔만 봤던 이 서민들에게 이제 주인자리를 드리려는데 이 중산층과 서민들이 저를 지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 말고 우리 서민들이 크게 안타까운 얘기를 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저를 찍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으로 흔들렸을 뿐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제 실수로 당의 실수로 또 누구누구 따돌리고, 그렇지요? 그렇게 일시에 흔들렸지만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깔보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줄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알아보실 것입니다. (박수)

저는 이 자리에 이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 한편으로 섭섭합니다. 그러나 또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에 인생이 걸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분들은 정치에 인생을 걸고 있는 분들입니다. 인생을 걸고 있는 분들이야 잘못되면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길 서고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제 탓입니다. 제가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1등을 유지했으면 그 분들 걱정도 안시켜드리고 참 마음의 갈등도 없이 편안하게 저를 따를 수 있게 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 제 불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전 그 분들을 탓할 생각이 없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믿고 싶네요.

앞으로 정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만 믿고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해 가지고 너 어디 위원장하고 너 어디 지부장하고 이런 정치 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가는 그런 정치 한 번 할 랍니다. (노무현 연호!) 이래도 바람이 꺼지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 바람은 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죽을 등 살 등 뛰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합동토론 다섯 번을 할 때까지는 제가 꼴찌

를 하더라도 꼴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동토론을 해봐야 그 사람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검증도 안 했는데 지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합동토론하면 아, 너는 말 잘한다 이 말이나 토론 잘한다고 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토론에서 검증에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말은 배울 수 있습니다.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입니다. 살아온 인생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깡판이라고 말했지 않나 이런 등등입니다. 명패 던졌지? 던졌습니다. 안 던지면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 안 던지겠습니다. 옛날에 사표 냈지 않나, 그 썩은 정치 판에서 사표를 낼 그런 분노도 없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박수) 이제 시비 걸지 말고 불법, 위법, 부도덕, 범법 우리는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거를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동토론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보충질문도 없고 동문서답해버리고 피해가 버리고 그것을 무슨 검증이라고 지금 검증 받고 있다고 그런 토론 같으면 나오지 말라 이겁니다.

방송사 패널들도 문제입니다. 똑똑하게 물어야지, 한번 피해가면 말안해 버려요 그런 검증 말고 제대로 된 검증 그래도 한 5번해야 결판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

여러분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집에 가서가지고 그냥 열배 백배, 백배만 늘려주시면 무조건 되는 건데. 박수만 치시고 기운 받아 소주 잡수시고 주무시고 내일이면 송금해야 합니다, 클릭 해야 합니다. 아시지요?

현금 클릭하고 그게 잘 모르는 분들은 돼지 팝니다. 돼지 잘 먹여 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특히 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지구당위원장님들이 이 자리에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제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새로운 용기를 얻어 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대전 충청도에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일방적으로 그야 말로 좀더 좋아진 정치 달라진 정치 그런 정치로 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오늘 여기는 또한 대전이므로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행정수도의 약속도 꼭 지켜내겠습니다. (박수) 저는 선거를 하면서 지역구 약속을 한번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저는 지역구 약속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약속은 제 신념을 바쳐서 제 인생을 걸고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좌절을 디디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 일 중에 국민의 정부에서 제일 첫 번째로 힘주어 할 일로 충청권 행정수도권 건설로 삼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12월19일 제가 과연 대전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TV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춤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